



# 영원히 시들지 않는 추억이 피었어요

## 리빙 & 아트 아트 & 리빙 드라이 플라워

안개꽃·천일홍 등 꽃잎 작고 단단한 꽃 적당  
흰꽃은 줄기째 식용색소에 담가 색옷 입히고  
그늘서 열흘 정도 거꾸로 매달아 말리면 완성

계절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가을이 고마운 요즘이다. 기분좋은 바람에 파란 하늘 위 풍개 구름, 드넓은 들만에 펼쳐진 코스모스, 무더위에 잠시 잊었던 식욕까지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 동명동 주택가에 한켠에 자리한 '정슬화원'에서는 계절을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봄에 피어있어야 할 노란새와 후리지아, 여름에 제 빛을 발하는 천일홍과 홍화가 가을이 온지도 모르게 활짝 피어 있으니 말이다.

가을꽃과 동거하고 있는 이들의 정체를 살펴보니 '드라이 플라워(dry flower)'다. 이를 그대로 말린 꽃이다. 꽃 뿐만 아니라 열매나 잎, 줄기를 건조한 것까지 모두 통틀어 드라이 플라워라고 한다. 일조시간이 짧은 북유럽에서 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25년전부터 화원을 시작했어요. 그때도 짙은 꽃을 말려 걸어놓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먼지가 쌓이면 버리고 다시 말리고 했지요. 그때는 드라이 플라워라는 용어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나 혼자 보는 걸로 만족해야했죠. 그러던 것이 근래 들어와서 사람들이 찾게 되더니 대중화 된 건 불과 1~2년 전인 것 같아요."

정슬화원을 가꾸고 있는 정은숙(60)씨의 설명이다. 학창시절부터 꽃을 좋아해 평생 꽃과 함께 해오고 있는 정씨는 최근 플라워 카페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광주 동명동 '정슬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화훼전문가 정은숙씨가 지난 여름 말려놓은 드라이 플라워를 보여 환하게 웃고 있다.

만들고 있다.

드라이 플라워는 거의 모든 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꽃잎이 큰 것보다는 작은 꽃이 적당하다. 안개꽃이나 스타티스, 천일홍, 장미, 수국, 노란새, 홍화, 소국, 시네시스, 리시안사스, 카네이션 등이 주로 이용된다.

원래의 꽃을 그대로 말리는 것도 예쁘지만 흰꽃에 예쁜 색옷을 입힌 드라이 플라워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안개꽃이나 흰장미, 흰 소국을 줄기째 식용 색소에 넣고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가두면 줄기를 타고 올라와 흰꽃을 물들인다. 블루, 옐로우, 핑크 옷을 입은 안개꽃은 생화보다 말렸을 때가 훨씬 예뻐 보일 정도다.

꽃을 말리는데도 공식이 있을까. 정씨는 인공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말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싱싱한 꽃을 말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풍이 잘되는 곳, 그리고 그늘에서 말려 주면 돼요. 이 두가지면 최상의 조건이죠. 건조기를 쓴다거나 약품을 써서 대량으로 말리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저는 자연에서 주는 꽃은 자연 그대로에서 말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색이 바라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겠지요."

말릴 때는 거꾸로 매달아서 말리는 게 기본이다. 생화를 꽃병에 꽂아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꽃이 시들고 꽃병우리가 고개를 떨구듯 꺾여진 채 말라가는 모습을 한번쯤은 지켜본 적이 있을 것이다. 꽃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거꾸로 매달는 게 가장 좋다는 설명이다. 말릴때의 꽃의 양은 대략 손에 들어올 정도면 된다. 한꺼번에 묶어 걸어두면 통풍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냥 볼때는 예쁘지만 드라이 플라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잎이 단단하지 않고 무른 꽃이 그렇다. 글라디올이나 백합, 금어초, 칼라 등이 해당된다. 잎이 마르기 전에 물리치고 쳐져서 오히려 생화의 아름다움을 앗아갈 수 있다.

드라이 플라워는 말린 그대로 걸어두거나 꽃병에 꽂아도 훌륭한 인테리어가 되지만 액자로 만들거나 한 두송이를 붙여 정성 가득한 편지나 카드로도 만들 수 있다. 먼지가 쌓였을 때는 가볍게 털어주고 비오는 날 녹녹해졌을 때는 다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면 된다.

가을에 쉽게 도전해 볼만한 드라이 플라워는 국화나 소국, 파리, 정미레딩글 등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만한 꽃과 열매 등이다. 화원에 들러 싱싱한 소국을 한달밤 사왔다면 햇빛이 직접 쬐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등에 바람 통하게 걸어두기만 하면 된다. 일주일이나 열흘 후 완성된 꽃은 집에 있는 토분이나 향아리, 바구니 등에 예쁘게 꽂아 놓으면 어느 집보다 분위기가 가을을 연출할 수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김수진 작 '기억' 四季, 당신의 사계

강희성 등 6명 '춘·하·추·동·순환'전  
'한 평 갤러리' 10월 2일까지

대인예술시장 '한 평 갤러리'는 오는 10월2일까지 '사계(四季), 그리고 순환'을 주제로 일곱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초대작가는 강희성, 김수진, 노현승, 조아라, 추순정, 하진 등 6명으로 회화·사진·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조아라는 설치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간의 생리욕구와 그 배설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에어 캔으로 제작한 여지다리와 손, 반지, 명품 등의 작품을 관객이 직접 만지고 터트리도록 유도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현승은 '사람냄새'를 테마로 삶과 노동의 치열한 일상을 사진에 담아냈으며 하진은 여성의 몸에 각인된 욕망과 허영, 혹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양식을 플라슈 기법을 이용해 나이트로 형상화했다.

김수진은 불완전한 '기억'을 회화작품의 주제로 삼았으며 강희성은 겨울처럼 음산한 죽음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추순정은 원색을 활용한 색채의 강렬한 대비 등을 통해 순환하는 사계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문의 010-2620-86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이종만 바이올린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서현일 피아노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사진) 독주회가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아나체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9' 등이다.

광주 지역 작곡가의 곡도 연주한다. 김선철의 '엄마야 누나야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김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누나를 그리며 작곡한 곡으로 동요 '엄마야 누나야' 주제와 '이별' '어두운 그림자', '절망', '기도' 등 모두 10개의 변주로 구성돼 있다.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협연한다.

4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씨는 학부 재학 중 독일로 옮겨 아헨 국립음대를 졸업(디플롬)하고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 마쳤다. 독일 하겐 시립교향악단 악장 및 재독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독일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등을 역임했으며 앙상블 우노아니모, 에라토 앙상블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서깊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소용돌이, 풍나무, 스톤질다시, 리얼벽, 벽면연결(벽면연결)

시공전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